
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2)

“다이이치” 보세키의 “감성”의 실

“다이이치(第一)”방적은, 1982년에 보통은 합섬 외는 방출할 수 없던 결속 정방기(fasciated yarn spinning)로 면 소재도 방출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, 이 정방기를 “감성(感性)”이라는 뜻의 “아아사(ASA)”라고 부르고 있다.

다이이치보가 뽑고 있는 결속 방적사는 주로 순면 20수, 30수, 40수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, 특수 용도로는 데님용으로 14수~50수까지 방출할 수 있다. 용도로는 일반적으로 캐주얼 웨어나 이너의 수요가 많다.

이 결속 정방기로 뽑은 실은 일반적인 링 방적사와는 달리 “섬유가 평행으로 가지런히 긴 다발을 이루며 꼬임이 전혀 없고(無撚平行纖維)”, 랩 섬유(wrap fiber)로 길게 배열되어 있는 섬유속을 감싸며 다발을 묶어주듯 감아주는 2중 구조가 특징이다.

링 방적사와 비교하면, 결속 방적사는 실의 생김이 잘 생겼다고 하기는 어렵고, 뽀뽀한 것이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 그러나 흡수성과 통기성이 아주 좋으며, 독특한 촉감 등은 결속 방적사만이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, 반듯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잔털이 적어서 여름용 내의나 스포츠 웨어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, “감성”을 자극하는 표정을 보여 준다.

1985년에는 “아아사”를 응용하여 폴리에스터 30%를 심(芯)으로 하고 70%의 면으로 감싸준 2층 구조사 “트리로가스”를 개발하였고, 1993년에는 “오미젠시(近江絹絲)”와 공동으로 폴리에스터 30%를 심으로 하고 레이온 70%로

감싸준 2층 구조사 “구심(究心)”을 개발하였다.

이외에도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 “아아사”를 기점으로 새로운 뛰어난 소재가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. ♣